

36.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신앙고백

찬 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스바냐 3장 9-20절

말씀묵상

요시아 왕 때 활동한 스바냐는 선지자 가문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스바냐도 처음에는 지를 범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아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 칭찬과 영애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9-13).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함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함 입술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사6:7)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2.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14, 17).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징벌을 그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3.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18-20).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며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맺는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악이 끊이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성도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적용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은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를 후원합니다.
 - 2. 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었지만, 교회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아침묵상**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을 위한 아침묵상이 9월 27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4. 대입수험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중보기도**
대입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 김예찬, 심예은 / 청년 : 백승민, 안명균)
※ 이외 대입과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을 교역자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5. 제직회 연기**
제직회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 6. 목장별 전화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이 있습니다.
 - 7. 예배위원안내**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2면 하단과 PPT 화면의 예배위원 안내를 확인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 새로 등록된 가족
윤순덕 성도 - 9목장(신동희권사 인도), 조요셉 청년 - 청년부(스스로)
채희준 성도 - 9목장(스스로)
 - ♣ 교우소식
헌물 - 하연주집사께서 장례 후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ni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은혜를 나누는 교회 (고후 6:1-2)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